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미래 먹거리 창출”



인디제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여해 관람객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우주 인디제이 대표. 인디제이 제공

## 광주 스타트업 '인디제이'

인공지능 접목 음악 플랫폼 시장 선점 'CES 2023' 지역 유일 혁신상 수상 테슬라 등 차량 AI솔루션 구축 추진 "市 지원시스템 활용 공동 성장해야"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도 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개발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광주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광주 동구 AI창업캠프 2호점에 자리를 잡은 '인디제이'다.

지난 2020년 인디제이에서 출시한 음악 메타버스 플랫폼 '인디제이'는 사용자 상황과 감정을 분석해 그 순간에 알맞는 음악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 2년만에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모두에서 음악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이용자와 해외 이용자의 비율이 7:3 정도였지만, 현재는 5:5까지 해외 이용자 비율이 늘어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인디제이'는 평소 사용자가 즐겨듣는 아티스트나 노래를 분석함은 물론, 센싱기술을 통해 구축한 정보로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심지어는 안면 인식 기술로 사용자의 감정까지 알아차려 음악을 추천한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사랑하던 정우주 인디제이 대표는 프로그래밍을 시작으로 IT, 빅데이터 마케팅업계에서 경험을 쌓으며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AI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직접 지켜왔다. 그런 그에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하고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지금의 '인디제이'를 생각해 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사람도 아이 때 얼마나 많은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방향이 달라지고 학습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했다"며 "결국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느냐가 인공지능 품질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수집하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인디제이'는 크게 '상황'과 '감정' 두 가지에 집중한다. '상황'의 경우 센싱을 기반으로

하는데 센싱이란 GPS를 통한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 여부, 스마트폰의 조도로 알 수 있는 상황의 밝기, 블루투스를 통한 다른 기기와의 연결 등 물리적인 센서를 활용한 동작들을 활용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감정'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카메라를 통한 안면인식 기술로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특히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여해 광주지역 기업 중 유일하게 혁신상을 수상하며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인디제이의 기업 체험 부스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도 바로 안면인식 기술로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였다.

정 대표는 "지금 인디제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넘어 냉장고부터 TV 등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기기까지 다 연동이 될테니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은 스마트폰의 사용 패턴에 집중해 있다면 이제는 생활 곳곳에 포진한 인공지능 데이터들을 추출해 더욱 생활에 밀접한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디제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변환경과 내부 상황 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콘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와 기술 실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또 전남대학교병원과 함께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AI 솔루션 개발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정 대표는 지역에서 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생태계가 구축되고, 또 그것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창기에는 광주도 인공지능 생태계가 많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희가 성장하고 또 광주시의 관련 지원 시스템과 인공지능 생태계가 동시에 성장하면서 지역에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갖춰지고 있다고 여겨진다"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더욱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끼리 함께 성장하고 팀워크 이루고 또 경쟁하기도 하면서 협력해야 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디제이가 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 작년 2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대혼란을 겪었으며, 그 여파가 가져온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기업들은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날이 갈수록 치솟는 원자재가격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야 했다.

또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기 부진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점차 침체해지는 미중 갈등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영환경은 갈수록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 전문가 85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도 기업환경 전망조사 결과, 교수 및 공공·민간연구소 위원 등의 72.6%가 '올해 기업경기가 작년보다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19.1%,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또한 광주상회가 시행한 2023년 1분기 기업 체감경기 전망조사 결과 역시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들의 절반가량은 '향후 기업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44.0%)'이라고 답했으며,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40.7%로 많았다.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국내의 경영 리스크로는 내수부진(38.2%), 원자재가격(37.4%), 수출경기(25.2%), 고금리(16.3%), 고환율(7.3%)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어두운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지자체 주도의 금융지원이나 물가·환율 안정 등 다각적인 기업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이 지속되는 경기 부진을 딛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편승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 기반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광주상회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간하지 않을듯한 먹구름일지라도 한 줄기 햇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을 드러내는 법이다. 지금 우리 광주는 다가올 새 시대를 위해 기반을 다지고 대비해야 할 시간이다. 마침내 햇볕이 들기 시작하면 그 봄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